

해남군, 도로·철도 SOC사업 ‘탄력’

9월 철도 개통...교통망 확충 속도 지역 성장·산업 인구 유입 등 기대 2027년 신안-해남 해저터널 완공 관내 군도 272km 노선 전산화 추진

전라남도 해남군의 철도와 도로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순항 중이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보성-목포 임성간 철도 개통으로 해남 최초의 철도노선이 들어서고 계곡면에는 땅끝해남역이 문을 연다.

목포 임성부터 영암과 해남, 강진, 장흥, 보성을 연결하는 보성-목포 임성간 철도는 지난 2003년 첫 삽을 뜬 이후 오는 9월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2030년 경전선 전철화가 완료되면 부산까지도 열차로 직행이 가능해진다.

해남군은 철도망 개통에 발맞춰 KTX 노선 유지를 위한 전략도 추진 중이다. 이 노선은 경전선과 호남고속철을 연결하고 서울-해남-제주를 잇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

이 노선이 실현되면 목포역을 경유하지 않고도 무안공항과 서울을 오가는 직통노선 확보가 가능해진다.

도로 교통망도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는 2026년에는 광주-해남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된다.

총 51km 구간에 1조6000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광주 벽진동에서 강진까지 연결되며 해남에서 광주까지의 이동시간이 40분대로 단축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2단계 사업도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며 순항 중이다.

2단계 구간은 강진-해남 북평까지 38km로 2028년 착공해 203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노선은 해남 육면면과 북평면에 나들목을 설치, 물류 유통과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에는 해저터널 개통이라는 상징적 사업도 앞두고 있다.

신안 압해-해남 화원을 연결하는 이터널은 2021년 착공 이후 6년 만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 최초의 해저터널로 관광 활성화 및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맞추어 지방도 공사도 순항중에 있다. 해남-대흥사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해남 평남 교차로-삼산 신기 교차로)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마산-산이 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마산 상등-산이대진)도 1단계 구간(마산 상등-산이노송) 착공 및 본격적인 보상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해남읍 신안을 비롯해 확포장 중인 해남-대흥사간 지방도와 연결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올해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화산 대지 구국도 확포장공사, 육천 용정 위험도로 개선사업, 계곡 신평-무이간 확포장공사도 올해 준공 예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망을 제

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완공된 도로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도 추진, 올해 마무리 예정이다.

관내 군도 272.9km 노선을 전산화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더욱 체계적인 도로 관리가 가능해진다.

교통 인프라 개선은 단순한 이동 편의성을 넘어, 해남군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는 생활·산업 인구 유입 확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현관해남군수는“생활인구를 교부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정도로, 생활인구 유입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며 “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의 확충은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해남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속가능한 해남의 미래를 여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강진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내달 16일부터 7월31일까지

전라남도 강진군보건소가 오는 5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다.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보건으로 계획 수립 및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통계전문가가 통계적 방법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한 표본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882명이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 수집을 위해 강진군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전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 4명을 채용,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등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5월 중 우편으로 가구 선정 통지서가 발송되며 이후 조사원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해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흡연, 음주, 식생활 등 건강행태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 여부, 의료이용, 삶의 질 등을 포함해 총 19개 영역, 169개 문항, 135개 산출지표로 구성된다. 조사 1건당 약 20~30분 정도가 소요되며 응답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61-430-5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병해충 조기 진단 체계 구축
해남군, 현장 진단키트 활용

전라남도 해남군은 농작물 바이러스와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진단키트를 활용한 조기 진단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장 진단키트는 농작물의 이상증상(식물 병해충 및 바이러스)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도구로 코로나 19 진단키트처럼 간편하고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진단할 수 있는 병해충은 토마토반점 위조바이러스,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 풋마름병 등 주요 병해충이 포함되며 간편한 시료 채취와 현장 판별로 결과를 수분 내 확인할 수 있다.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현장 진단은 물론 진단 결과에 따라 방제요령, 재배관리, 작형전환 등 후속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남군은 이번 조기 진단서비스 추진과 함께 농업인 맞춤형 현장 컨설팅, 예찰 강화, 스마트 방제 기술 보급 등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진단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농가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061-531-3871~4)으로 신청하면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영암군, 재난 심리상담 제공
구제역 발생 축산농가 대상

전라남도 영암군보건소는 구제역 발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축산농가 주민에게 일상을 찾아주는 ‘재난 심리상담 서비스’를 수시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재난 심리상담 서비스는 불안·우울 감사를 바탕으로 영암군정신건강센터의 전문요원이 심리상담, 마음 안정 치료, 심리 응급처치를 진행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돕는다.

서비스 과정에서 발견된 고위험군 주민에게는 센터가 마음건강주치의로 위촉한 영암한국병원 정신건강 전문의와 연결해 무료 심층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재난 심리상담 서비스는 주간에는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061-470-6266)에 신청할 수 있고 주말·야간에는 24시간 정신위기상담전화(1577-0199) 등에서 안내한다.

영암=한교진 기자

미용업 종사자 위생 교육
무안군, 기술 및 안전교육 병행

전라남도 무안군은 최근 대한미용사회 무안군지부 주관으로 미용업 대표자 40여명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용업소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의 공중위생관리법령,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술 교육, 심폐소생술 및 안전교육과 식중독 예방수칙 교육을 병행했다.

대한미용사회 무안군지부는 이날 정기 총회를 개최해 2024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25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무안군 운남면 복지기동대 직원들이 관내 한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정리하며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운남면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복지기동대가 마을 이장, 요양보호사 등과 협력해 생활 불편을 겪는 취약계층 가정을 신속히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따뜻한 손길

을 전하고 있다.

23일 무안군에 따르면 운남면 복지기동대는 올해 들어 총 1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생활불편 해소, 안전 점검

등을 지원했으며 밀반찬 나눔과 후원물품 전달 등 다양한 복지 활동을 펼쳤다.

지난 3월에는 한부모 부자가정에서 주거환경의 열악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현장을 찾아 쓰레기와 폐기물을 정리하고 도배 작업 등을 진행해 쾌적한 생활공간을 마련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완도군, 농·어업인 1만여명 공익수당 59억 지급

1인당 60만원씩

전라남도 완도군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1차 지급 대상자 9992명을 확정하고 1인당 60만원씩 지급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 유지 및 증진과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1월6일부터 2월7일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을 완료했으며 ‘농어업인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

급 대상을 확정했다. 이에 총 59억원을 완도사랑상품권(정책발행)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읍면 사무소에서 배부하는 공익수당 수령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상품권 수령은 소재지 농협·수협·축협·광주은행·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가능하다. 수당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지만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읍면장의 확인 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리 수령 할 수 있다.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 지역 내마트(하나로마트 등 대형 사업장 포함), 음식점, 주유소, 병의원, 약국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농어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으면서 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다.

완도=정태영 기자

